

불자 세상보기



김준환 A+에셋자산관리연구원

인간이 평생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던가? 우리 불자들은 세금을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11월 14일 '유럽 행동의 날'로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등지에서 수 백만 명이 긴축 반대의 총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였다. 정부 재정적자가 위협적인 수준으로 오르고, 각국 정부가 복지정책 축소와 세금 확대 정책을 내어 놓자,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수익이 줄어든 영국과 미국의 대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아일랜드, 스위스, 두바이 등으로 본사를 옮기고 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국가에선 조세회피 움직임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기업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좀 더 우호적인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부자 증세'의 움직임도 있다. 워런 버핏의 '버핏세' 발언을 시작으로 독일의 사업가·의사 등 50명으로 구성된 '자본 과세를 요구하는 부자들'이란 단체는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긴축 정책이 아닌 부유층에 대한 증세만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식 있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 국가의 빈곤갯을 채우자는 흐름이다. 대신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희망하는가?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의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경기부양과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투자되었다고 하는 4대강 사업과 점점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89조, 민주당은 164조의 큰 폭의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가 2011년 34%에서 2030년 106%로 예상되는 빚더미에 묻혀가는 나라살림에서 세금을 안 올리고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장 세수확보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 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9일 고액, 상습 체납자 721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수억에서 천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의 세금만 11조777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의 5.4%에 달하며, 내년도 0~5세 무상보육 정부예산(5조5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기도 하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 색출에 본격 나섰다. 고액체납자의 시중은행 '대어금'에 대해 압류해서 열어보니 골드바, 귀 금속이 들어 있었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고가 미술품이 대거 발견됐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지난 2월 전국 지방국세청에 신설되어 고의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을 막아 세수확보를 시작했다. 중점 관리대상은 △숨긴 재산 세금을 안 올리고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상습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 자력으로는 신중, 첨단화하는 탈세 수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가동해 은오프라인 탈세감시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게 되고, 금융권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자 중간 부자들은 절세법을 찾기 위해 비과세 상품 가입이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 회복'을 위해,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증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평생을 부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며 모아온 자산 그리고 따라오는 세금, 우리 불자 신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란 한다'는 식의 절세우선주의의 행태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선택을 통해 행복을 얻는 인생길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 회복'을 위해,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증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평생을 부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며 모아온 자산 그리고 따라오는 세금, 우리 불자 신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란 한다'는 식의 절세우선주의의 행태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선택을 통해 행복을 얻는 인생길 되기를 바란다.

社說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에 거는 기대

조계종 문화부가 12월 14일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 좌담회'를 열고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비록 초안이라 거친 면이 있지만 조계종 문화부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진다. 문화부가 제시하는 추진 과제는 △정책·제도 △보존 △활용 △무형문화유산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정책 분야에는 종단 문화유산 행정체제와 국가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보존 분야는 전통문화유산 조사부터 방재, 사지 보존, 복원 불교유산까지 방대한 속제를 제시했다. 특히 활용 분야에 있는 전통문화원형 개발과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콘텐츠 개발은 주목할 만 하다. 현재 국보의 57%, 보물의 62%가 불교 문화재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아직도 국유 문화재에 예산이 편중돼 있고, 불교계 역시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실 조계종 내 성보위원회는 회의 한 번 하지 않는 허울 뿐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불교인은 그리 많지 않다. 스님과 불자, 국민들도 국가와 종단의 불교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은 장기적인 정책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주먹구구식 직흥정책에서 탈피해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간다는 것은 불교의 문화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조계종의 속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숙의해 제대로 완성된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을 대중들에게 내놓는 것이다. 그리고 '구술이 서말이라도 껌어 보배'라고 했듯이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쌍용차 국정 감사 약속 환영한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바로 대선 직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정 조사가 진행하겠다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약속한 것이다. 불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는 12월 10일, 1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잇달아 방문해 쌍용자동차 문제의 사회통합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의 주요 관계자들은 △노사정 외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참여하는 협의태이블 구성 △대선 후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여야 협의진행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등에 뜻을 같이했다. 사실상 종교인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모든 사안들을 약속한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같은 협상 테이블들을 불교계가 주도해 왔다는 점이다. 올해 10월 조계종은 노동위원회를 출범

하고 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왔다.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도 구성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동참했다. 현재도 대한문 앞 쌍용차 천막 농성장에서는 지난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108배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불교계의 꾸준한 노력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후발 주자임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공과(功過)를 떠나 종교인들은 훌륭히 정치인들의 약속을 이끌어 냈다. 이 뜻에 동참한 주요 정당들에게도 박수 보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이행 여부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들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은 그들이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인들의 약속만이 남았다. 그들이 '공약(公約)'을 '헛된 약속(空約)'으로 만들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부대중 칼럼

‘불교평론’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허우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경희대 교수

《불교평론》은 게재된 글 하나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면서 2012년 9월경 급히 폐간되었고, 석 달 뒤 불교계 안팎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되살아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평론》이 벌여온 가을학술 세미나,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열린 논단, 올해의 논문 시상 등 모든 활동도 내년부터 정상화될 것이다. 《불교평론》의 총격적인 폐간과 복간을 두고 편집위원장으로서 만감이 교차했다. 첫째, '승가와 재가 학자들이 돌이키니구나'라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느낌이었다. 복간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불교평론》과 수석사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을 것이다. 승속 불이는 또 재가 불교학자들과 승단이 곳곳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기

라스 같은 고승대덕의 인생과 그들이 남긴 말과 글이 아니던가. 그들의 삶과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교의 진실성조차 의심했는지 모르고, 연구는 아주 빈약했을 것이다. 선양회가 승가 외부 사회와 재가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해 있다면, 《불교평론》은 그야말로 승속의 합작품인 것이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학자가 마땅히 두려워 할 비판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승속이 돌이키니구나 비판의 대상을 아프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가 타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계의 문제는 승가 내부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계율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출가자가 불음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보자. 그런 문제는 '불사음' 계율을 좀 지키는 재가학자들이 지적하기 전에 출가 공동체가 확인하고 자정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넷째, 외부에서 문중의 인물을 비판하는 경우 문중은 이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자유 결사의 시대에 각 문중은 자유롭게 특성을 대표 인물로 세워져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창할 수 있다. 하지만 문중 인물 중에는 이미 역사의 반열에 오른 분도 있다. 그런 경우 외부인의 자유로운 연구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비판에 오류가 있다면 반박하면 될 것이 아닌지. 예컨대 한운운과 비구 법정의 위대함 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나 다른 불교를 실천했다. 불교 학자는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각자의 특성과 차이를 드러내고 한계를 비판할 수 있다. 실제 경허 스님에 대해 제자 방한암과 송만공의 평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 이는 세상이 아는 일이다. 넓게 보면 세계불교사도 한국불교사도 복수의 인물로 구성된다. 복수의 인물이 있어야 불교는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이런 다양함과 풍부함은 점차 더욱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섯째, 순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과 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깨달음은 사람을 파계의 결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가? 아니면 모든 깨달음은 행위 규범을 반드시 요구하거나 수반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데는 정정한 고승대덕이 제격이다.

문이 필자가 대답해야 한다면, 초기불교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분에게 니르바나는 답 진치가 다 끊어진 경지이고,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면 계율의 준수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 분은 또 승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범수제(魔防魔制) 정신으로 계율을 제정해 나간 것을 보면, 모든 행위를 덮어준다는 깨달음의 신비 장막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리라. 계간지 《불교평론》은 1999년 11월 창간 이래 독자들에게 약속해온 것이 있다.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 정치 사회현상을 분석 조명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물론 앞으로도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순간으로 필자는 《불교평론》을 일으킨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것들이 우리의 힘 바깥에 있다는 점도 새삼스레 깨달았다. 우리는 《불교평론》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저 약속으로 돌아가려 한다. 추운 겨울에도 욕망, 분노, 무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불교와 현대 사회가, 승과 속이 함께 있는 곳으로, 거기 가면 경허와 만해도 만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불교평론》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저 약속으로 돌아가려 한다. 추운 겨울에도 욕망, 분노, 무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불교와 현대 사회가, 승과 속이 함께 있는 곳으로, 거기 가면 경허와 만해도 만날 수 있으리라.

Table with 2 columns: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Advertisement for '4 rights for practitioners'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featuring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Yingga's Heaven) and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12-pieces of Pal-sang-tam-ju, their secret and miraculous efficacy).

Advertisement for 'Sachwa Insurance' (사찰화재보험) featuring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Consult with experts) and '가입시 필요자료' (Required materials for joining).